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149



Contents



※ 2026.09.23.(수) 기준(대상 기간 : 2026.09.16.~2026.09.22.)

□ 중앙정부·지자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탈석탄 로드맵 LNG 전환…탄소중립 후퇴 논란(2026.09.20)	1
– 보령시, 탄소중립 선도도시 에너지 전환 비전 제시(2026.09.22)	1
– 경기도의회, 연안 블루카본 조례 본회의 통과(2026.09.21)	2
– 단양군-충북TP, 시멘트산업 CCU 전환 협력체계(2026.09.17)	3
▪ AI 분야	3
– 산업부, 5극3특 성장엔진에 제조 AI(M.AX) 결합(2026.09.17)	3
–李大통령, UAE 칼둔 접견…방산·AI·원전 협력 확대(2026.09.18)	4
– 위성곤 지사, 제주 40MW AI 데이터센터 용수 충분(2026.09.17)	5
– 전북, 피지컬AI 클러스터 투자유치·금융지원 투트랙(2026.09.22)	5
– 전주시, 피지컬AI 특별도시 미래전략 협의체 출범(2026.09.21)	6
– 경기도, 취약 200가구 AI 스마트홈 돌봄 실증(2026.09.20)	7

□ 중앙·지방기관 연구 동향 7

▪ 탄소중립 분야	7
-----------	---

- 한전KDN, 기후산업국제박람회서 에너지ICT 선보여(2026.09.17) 8
-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지자체 탄소중립 실무 역량교육(2026.09.20) 8

■ AI 분야 9

- 한수원, AI 풍력터빈 성능개선 기술 EPRI 이전상(2026.09.16) 9
- 충북연구원, AI 제약바이오 전략 '제조 실증' 전환 제안(2026.09.18) 10
- 광주 광산경찰서, AI 순찰로봇 범죄 취약지 투입(2026.09.21) 10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11

■ 탄소중립 분야 11

- 코나아이, 탄소중립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10월 개시(2026.09.16) 11
- 현대차, 모로코 탄소중립 지원 전기버스 15대 공급(2026.09.22) 12

■ AI 분야 12

- 현대건설, 국내 1호 AI 전용 데이터센터 16개월 시공(2026.09.21) 13
- 카카오, AI로 데이터센터 냉방 전력비 23% 절감(2026.09.22) 13
- CJ대한통운, 피지컬AI 물류현장 투입 확대(2026.09.21) 14
- 대구가톨릭대, 피지컬AI 재배 딸기 제품화 산학협력(2026.09.17) 14
- 알리바바, 10조 파라미터 AI·최강 AI칩 공개(2026.09.22) 15

중앙정부·지자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정부	☐ 탈석탄 로드맵 LNG 전환...탄소중립 후퇴 논란(2026.09.20)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8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분) 7차 토론회에서 204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 60기를 모두 폐쇄하되 상당수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대체하는 '2040년 석탄화력 폐지 로드맵'을 발표하며,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확보를 위한 전원 전환 방향을 제시 - 정부는 2036년까지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는 석탄화력 27기를 LNG 발전소로 바꾸되 2030년까지 19기, 2036년까지 8기를 전환하고, 8기 가운데 4기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용으로, 나머지 4기는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용으로 수도권과 호남에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토론회 내용이 최종안은 아니나 12차 전기분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 -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석탄을 대체할 주요 에너지를 같은 화석연료인 LNG로 급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2040년까지 남은 14년간 재생에너지와의 조화를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고, 11차 전기분이 LNG 발전 비중을 2023년 27.5%에서 2038년 11.1%로 낮추는 계획을 제시했던 만큼 탄소중립 정책 후퇴라는 비판이 제기
지자체	☐ 보령시, 탄소중립 선도도시 에너지 전환 비전 제시(2026.09.22) - 엄승용 보령시장이 22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김기재 당진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탄소중립 선도도시 간담회'에서 보령시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간담회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추진계획 발표에 이어 지자체 건의사항 청취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업 시장은 과거 국가 발전을 이끈 탄소중심 도시에서 탄소중립 도시로 도약하는 대표 모델 구축을 목표로 화석연료 중심 산업을 수소와 CCU 등 신산업으로 전환하고, 1.3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을 바탕으로 시민의 일상적인 탄소 감축 활동이 가치로 연결되는 '정의로운 에너지·가치전환 플랫폼 도시'를 만드는 것이 보령시의 비전이라고 제시 -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 이후 인구 10만 명 선이 무너지고 지역 총생산이 감소한 점을 들어 에너지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범정부 지원과 한국발전통합 본사의 충남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탈석탄 대체 발전의 송전계통 반영과 신규 송전 인프라 건설을 통한 추가 계통 연계, 보령 웅천산단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송전계통 현대화 사업 등을 건의
	□ 경기도의회, 연안 블루카본 조례 본회의 통과(2026.09.21)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제정안이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며, 도내 서해안 연안의 갯벌과 염습지, 잘피림 등 해양 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온실가스인 '블루카본'의 가치를 체계화하는 법적 근거를 구축 - 조례는 5년 주기의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 서식환경·면적·탄소흡수 및 저장량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와 학술 연구, 연안 식생의 신규 조성·재조성과 보전·복원 지원,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민간기업·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연안 생태계 서비스 평가와 생태관광 자원화 지원 등을 주요 조항으로 명시 - 경기도가 현재 도내 연안을 중심으로 잘피와 염생식물의 분포 현황과 탄소 저장 효과에 대한 학술 연구를 이어가는 만큼 실태조사와 탄소흡수 능력 분석을 보전·복원 사업과 실질적인 정책 프로그램으로 직접 연계하는 발판이 마련됐으며, 이 부위원장은 블루카본 정책이 자리 잡으려면 흡수·저장 능력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데이터 축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단양군-충북TP, 시멘트산업 CCU 전환 협력체계(2026.09.17) - 충북테크노파크가 17일부터 18일까지 충남 서산 일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북도, 단양군 등이 공동 지원하는 '2026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단양군 시멘트산업 고부가가치 친환경 CCU산업 육성' 워크숍을 개최하고, 단양군 지역 기반 기업들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 도입 촉진과 친환경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에 착수 - 워크숍에는 충북테크노파크와 단양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 수혜기업 관계자와 전문가 등 35여 명이 참석해 중간점검과 함께 서산 탄소중립 실증지원센터의 CO₂ 포집·활용 실증설비를 견학했으며, 단양군과 충북테크노파크, 연구기관, 수혜기업 12개사가 '단양군 CCU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기술도입·전환 업무협약'을 체결 - 협약 참여 기관과 기업은 기업별 공정 특성에 맞춘 CCU 기술 적용, 시제품 제작 및 시험·인증 연계, 기술·실증 인프라 공동 활용, 기관·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으며, 충북테크노파크는 이번 협약이 지역 기업의 CCU 기술 도입과 사업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하고 기술 도입부터 시험·인증,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 강화를 약속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정부	□ 산업부, 5극3특 성장엔진에 제조 AI(M.AX) 결합(2026.09.17) - 이재석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정책과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6 쿠키뉴스 산업포럼' 종합토론에서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5극3특 성장엔진'과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정책 'M.AX'를 결합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의 AI 전환을 확산하고 모든 권역에서 AI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산업부 방침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발표 - 5극3특 성장엔진은 지역 주도, 대규모 투자 기업 중심, 성장 거점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의 세 방향으로 추진되며, 중앙정부가 지역별 산업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대신 지방정부가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실제 투자 기업이 있는지와 국가 산업정책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해 선정하고 여러 지역이 유사 산업을 제안한 경우 중복을 줄이고 가치사슬 내 역할을 고려해 조정한 구조 - 지원은 개별 R&D 과제보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낼 대규모 투자 기업에 초점을 맞춰 투자 기업과 공급망 내 협력사가 공동 R&D를 수행하도록 해 기업 투자를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연결하는 구상이며, 산업부는 지방정부가 지역 수요와 기업 투자 계획을 토대로 사업을 제안하면 재정과 규제 완화,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
중앙정부	□ 李대통령, UAE 칼둔 접견...방산·AI·원전 협력 확대(2026.09.18)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의 한국 담당 고위 인사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접견하고 국방·방산과 인공지능(AI), 원전 등 양국 간 전략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지난해 11월 UAE 국빈방문 이후 속도를 낸 온 실질 협력의 이행 상황 점검과 새로운 협력 과제 발굴을 추진 - 칼둔 행정청장은 UAE에서 한·UAE 협력을 총괄하며 정상 간 합의를 구체적 사업으로 연결하고 주요 현안을 조율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맡은 인사로, 양국은 지난해 정상외교를 계기로 국방·방산과 원전·에너지 중심의 협력 관계를 AI와 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 분야로 확장해 왔으며 이번 접견에서도 AI, 문화, 원전, 우주 등 분야의 후속 협력 방안을 폭넓게 다룰 전망 - 이 대통령은 국빈방문 이후 고위급 교류와 분야별 협력이 활발히 이어지는 점을 평가하고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할 예정이며, 칼둔 행정청장은 접견에 앞서 우리 측 UAE 전담 인사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과 별도 회담 및 오찬을 갖고 고위급 교류 지속과 정상 차원 합의 협력 사업의 이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집중 협의
지자체	□ 위성곤 지사, 제주 40MW AI 데이터센터 용수 충분(2026.09.17) -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설계 중인 제주 40메가와트(M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따른 물 부족 우려에 대해 하이브리드 방식을 도입한다면 용수 부족 없이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고 밝히며 '친환경 하이브리드' 냉각 방식 도입 가능성을 시사 - 구상은 고성능 GPU 서버용 액체 냉각(수랭식)과 제주의 외기 환경을 활용한 공랭식을 결합해 기존 대형 증발식 냉각탑 대비 용수 사용량을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위 지사는 1991년부터 수자원 관리에 집중해 온 제주의 물 관리 역량을 독보적이라 강조하고 저수지 확충과 함께 바다로 흘러드는 빗물과 용천수를 저장해 농업 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의 추진을 설명 - 위 지사는 '기후경제수도 제주'를 기치로 단기적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 자원을 확대해 출력제어를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그린수소·히트펌프 등 대규모 전력수요를 확대해 잉여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며 전기차-전력망 연계(V2G)와 송·배전망 확충을 병행할 계획을 밝혔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한국마사회·한국공항공사·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3대 유치 목표로 제시
	□ 전북, 피지컬AI 클러스터 투자유치·금융지원 투트랙(2026.09.22) - 전북특별자치도가 '피지컬AI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 사업' 착수에 이어 기업 투자유치와 금융지원 기반 강화에 나서며 피지컬AI 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서울 한국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피지컬AI 지역거점 발전 포럼'에서 로봇기업과 스타트업 등 2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북의 육성 의지와 발전 방향을 설명하는 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 - 한국산업은행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조업의 AI 전환과 피지컬AI 산업 육성을 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한 지역거점의 역할을 공유하고 정책금융과 지역금융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북도는 도내 산업 기반과 지원 정책을 소개하며 연구개발 사업과 별도로 투자유치·금융지원을 함께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의 클러스터 육성 기반을 확충 - 포럼은 기존 생산 기반을 피지컬AI 중심으로 바꾸고 지역거점이 주도하는 피지컬 AI 글로벌 1강 도약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전북도는 연구개발 사업 착수와 로봇기업·스타트업 등 200여 개 기업 대상 유치 활동, 정책금융·지역금융 연계를 통해 피지컬AI 산업 클러스터를 지역 주도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방향을 확인
	□ 전주시, 피지컬AI 특별도시 미래전략 협의체 출범(2026.09.21) - 전주시가 21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신산업융합지식산업센터 회의실에서 조지훈 시장과 피지컬AI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피지컬 AI 미래전략 협의체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피지컬AI 정책·기술·산업 동향을 공유하며 피지컬AI를 전주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AI특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착수 - 협의체에는 제조혁신피지컬AI협회(PAMA)를 비롯해 로봇웨어에이아이, 메가존클라우드, 텔로스, 페르소나에이아이 등 기업과 전주대학교,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전북테크노파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JICA), 전북지역산업진흥원, 캠퍼스종합기술원 등이 참여하며, 한동승 전주대 명예교수는 산업발전 방향과 전주시의 전략적 역할을 제시 - 전주시는 추진 중인 AI 신뢰성 혁신 실증사업을 기반으로 AI·로봇 분야 시험·검인증 역량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K-로봇 피지컬AI 실증공유센터 등 거점시설 유치로 기술 개발부터 시험·검증,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며, 조지훈 시장은 협의체를 현장의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하는 실행 중심 기구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표명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경기도, 취약 200가구 AI 스마트홈 돌봄 실증(2026.09.20) - 경기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추진 '2026년 인공지능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 sprint)'에 광역지자체 대표(전남 공동)로 NHN 등 12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5월 최종 선정되면서 국비 2억7500만 원을 확보하고,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대상 스마트홈 돌봄 사업에 착수 - 도는 도시형 시범지역으로 성남시를 지정해 노인 · 장기요양 · 만성질환자 200가구에 고도화된 스마트홈 돌봄 서비스를 내년 12월까지 제공할 계획으로, 대상자에게는 인공지능 스피커와 활동량 감지기, 반려로봇, 스마트워치, 혈압측정기 등이 제공되고 태블릿 기반 AI가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며 음성 · 표정 · 생활 신호를 종합 분석해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구조 - AX 스프린트는 상용화 직전 단계의 AI 기술과 제품을 실제 돌봄 현장에 적용해 성능과 활용성을 검증하고 현장 적합성이 확인된 서비스를 신속히 확산하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 돌봄 프로젝트로, 복약 알림 · 외출 감지 · 수면 패턴 분석을 통해 대상자의 일상생활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줄이는 동시에 현장 종사자의 업무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

중앙지방기관 연구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기관	□ 한전KDN, 기후산업국제박람회서 에너지ICT 선보여(2026.09.17) - 한전KDN이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제에너지 기구(IEA) 등이 공동 주최하는 '2026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에 참가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에너지ICT 기술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으며, 올해 박람회는 '기후테크가 만드는 거대한 변화: 탈탄소 세상을 향한 도약'을 주제로 진행 - 한전KDN은 분산에너지 지능형인프라와 국가 전력망 사이버보안, KDN-VPP(통합발전소), K-H2ECP 등 4종의 솔루션을 전시했으며, 분산에너지 지능형인프라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에 따른 전력계통의 변동성에 대응해 분산형 전원의 안정적 계통 연계와 실시간 전력품질 관리, 출력제어 지원으로 전력 불평형 해소와 정전 등 계통 사고 예방에 기여 - 국가 전력망 사이버보안은 국가정보원 검증 암호모듈로 전력 데이터를 보호하고 전력기기에 인증서를 적용하는 체계로 UAE 바라카 원전 등 원전 사이버보안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K-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KDN-VPP는 분산된 태양광·풍력·ESS를 ICT로 통합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고 AI 기반 발전량·전력 가격 예측과 입찰전략 수립, 실시간 거래를 지원
	□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지자체 탄소중립 실무 역량교육(2026.09.20)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난 18일 서울 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자체 에너지·탄소중립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 지역사회 에너지·탄소중립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히며, 2022년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이후 5년째 이어 온 교육을 올해는 현장 실행 능력 강화에 초점을 둔 실무 중심 강연으로 운영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기관	- 프로그램은 3개 세션으로 나뉘 제1강은 카이스트(KAIST) 이정익 교수가 'AI(인공지능) 시대 전력수요 급증과 SMR(소형모듈원자로)-무탄소 전원 확보 전략'을, 제2강은 안양대 임채홍 교수가 '에너지 대전환 시대, (기초)지방정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적응방안 모색'을, 제3강은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최지혜 선임연구원이 '지역사회 탄소중립 실행 실무 전략'을 주제로 강연 - 제3강에서는 질의응답으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실행 과제의 해법을 모색했고 교육은 무료로 진행돼 상시학습 시간이 인정되는 수료증도 발급됐으며, 올해 교육은 서울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권역별 2회가 추가 진행될 예정이고, 이주수 재단 대표이사는 중앙과 지방,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할 때 에너지 전환이 일자리·교육·복지 등 지역 전반의 긍정적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기관	□ 한수원, AI 풍력터빈 성능개선 기술 EPRI 이전상(2026.09.16) - 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희천)이 미국 전력연구소(EPRI)가 주관하는 '기술이전상(TTA·Technology Transfer Award)'을 수상했다고 밝히며, EPRI와 공동 수행한 풍력발전 성능개선 프로젝트에서 머신러닝으로 풍력터빈 성능을 개선한 성과를 바탕으로 원자력에 이어 풍력발전 분야에서도 자체 엔지니어링 기술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 - 한수원은 프로젝트에서 머신러닝 기술로 풍력터빈의 비정상적 운전 특성을 식별하고 발전 성능 저하 원인을 분석해 구체적 대응 방안까지 도출하는 데이터 기반 엔지니어링 기술을 확보했으며, 개발 기술은 현재 미국에서 운영 중인 풍력단지에도 적용돼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능이 저하된 터빈을 찾아내고 이상 원인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기관	분석한 뒤 후속 개선계획을 수립 - 한수원은 확보한 소프트웨어와 분석기술을 자체 운영환경에 맞게 내재화해 풍력 발전 설비를 자체적으로 진단·관리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 용역 의존도를 줄여 정비 비용 절감에 활용할 계획이며, 해외에서 운영하는 풍력자산에 자체 성능평가 기술을 적용해 발전 효율을 높이고 자산 운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지방기관	□ 충북연구원, AI 제약바이오 전략 '제조 실증' 전환 제안(2026.09.18) - 충북연구원 허진아 책임연구위원이 'AI 기반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동향과 충북의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충북의 인공지능(AI) 제약·바이오산업 전략을 '기술 개발'에서 '현장 실증·제조 혁신'으로 전환하고, 청주 오송의 제약·바이오 전주기 인프라를 활용해 AI 기술을 실제 제조 현장에 적용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선점해야 한다고 제안 - 보고서는 미국·EU·중국·일본 등 주요국이 AI 기술뿐 아니라 데이터와 실증·검증, 스마트 제조, 규제과학을 함께 육성하는 반면 국내는 AI 신약개발과 바이오 데이터 활용 확대에도 데이터 연계와 현장 실증, 융합인력, 규제 대응체계가 취약하다고 진단했으며, R&D부터 임상, GMP, 품질분석까지 갖춘 오송 인프라를 외부 AI 기술의 현장 적용·검증에 유리한 강점으로 분석 - 스마트 GMP와 제조공정 최적화, 이상 탐지 등 AI 기반 제조·품질관리 분야를 우선 육성하고 AI가 실제 생산공정의 효율과 품질을 얼마나 높이는지 검증하는 실증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오송 인프라와 연계한 단계별 실증 생태계 조성과 외부 AI 기업 협력, 융합인력 양성을 병행해 'AI가 실제 바이오산업에서 작동하는지를 증명하는 지역'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제시 □ 광주 광산경찰서, AI 순찰로봇 범죄 취약지 투입(2026.09.21) - 광주 광산경찰서가 21일 오후 AI순찰로봇 '페트로버'의 본격 운영에 앞서 현장 시연회와 순찰구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히며, '장윤기 사건' 이후 범죄 취약지에 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한 주민 우려가 커진 데 대응해 오는 28일부터 순찰로봇을 실제 순찰에 투입하기로 하고 시범 순찰구간의 지형적 특성과 보행환경, 장애물 인식·회피 기능을 종합적으로 점검 - 점검에는 김만수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박병규 광산구청장, 임문영 국회의원, 광산구의회 의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율순찰로봇의 주요 기능과 실제 운행 모습을 확인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페트로버'는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4방향 라이다와 초음파 센서 등을 활용해 주변 장애물과 사람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작동 - 전남광주 지역에서 경찰이 AI순찰로봇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광산경찰은 시연회와 순찰구간 점검에서 확인된 지형·보행환경 관련 사항을 순찰 경로 설정과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업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로봇의 안정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임으로써 범죄 취약지 순찰에 자율순찰로봇을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코나아이, 탄소중립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10월 개시(2026.09.16) - 글로벌 핀테크 기업 코나아이(대표 조정일)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우)과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가운데 처음으로 친환경 활동으로 적립한 탄소중립포인트를 경기지역화폐와 김포페이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해 받는 서비스를 도입해 10월 서비스를 개시 - 협약에 따라 이용자는 탄소중립포인트를 이용자 약 900만명 규모의 경기지역화폐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와 김포페이 가운데 선택해 받을 수 있게 되며, 탄소중립포인트 전용 플랫폼 '카본페이' 앱에서 지급수단으로 경기지역화폐나 김포페이를 선택하거나 카본페이 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경기지역화폐·김포페이 앱에서 회원가입과 신청, 지급 내역 확인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연동 -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은 전자영수증 발급과 텀블러·다회용기 이용, 친환경 제품 구매, 폐휴대폰 반납 등 실천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7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계좌 입금이나 민간 포인트 중심이던 인센티브를 지역 가맹점 소비로 연결하는 구조가 마련되며 코나아이는 NH포인트·KB포인트리·튼튼머니 전환 서비스에 이어 환경 분야 공공 포인트까지 연계 대상을 확대
	□ 현대차, 모로코 탄소중립 지원 전기버스 15대 공급(2026.09.22) - 현대자동차가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와 모로코에 친환경 전기버스 '일렉시티' 15대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히며, 21일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이승민 현대차 상용상품실 상무와 도영아 코이카 지역사업2본부 이사, 샤픽 라샤디 주한 모로코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로코 마라케시시 친환경 전기버스 교통체계 구축사업 전기버스 국내 전달식'을 개최 - 모로코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최대 45.5%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산업·교통 분야의 저탄소 전환을 추진 중이며, 코이카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을 지원하고 현대차는 일렉시티 15대와 급속충전기 등 기자재 공급과 함께 운영·유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 교육과 기술협력을 실시 - 일렉시티는 모로코에 최초로 공급되는 국내 생산 전기버스로 주요 관광지구 내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돼 대중교통 수요 대응과 도심 대기오염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샤픽 라샤디 대사는 COP22 개최지인 마라케시에 한국 전기버스가 도입되는 상징적 의미를 언급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모빌리티를 위한 한국·모로코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현대건설, 국내 1호 AI 전용 데이터센터 16개월 시공(2026.09.21) - 현대건설이 에이아이팩토리포항피에프브이(AI Factory Pohang PFV)가 발주한 '포항 AI 데이터센터 신축공사'의 본계약을 완료하고 사전 제작 콘크리트(PC) 설치에 돌입했다고 21일 밝히며,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광명일반산업단지에 수전 용량 40MW(IT Load 32MW) 규모의 대한민국 최초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 건설에 착수 - 프로젝트는 지난 6월 착공해 총 공사 기간 16.5개월로 2027년 11월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하며, 엔비디아 최신 AI 칩 '베라 루빈' 기반 GPU 서버에 대응해 기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대비 약 10배 높은 전력 밀도의 초고집적 환경을 구현하고 국내 최초로 '수랭식 냉각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에너지 효율 지표 PUE를 1.25로 설계해 국내 최상위권 전력 효율을 확보 - 현대건설은 국내 상업용 데이터센터 최초로 슬래브·벽체·계단을 포함한 콘크리트 구조체 전면에 PC 공법을 적용해 1년가량 걸리던 골조공사를 2개월로 단축하고 프리컨스트럭션 서비스와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사업 참여 후 약 한 달 만에 착공했으며, 사업시행사 네오에이아이클라우드는 차세대 GPU까지 수용하는 확장형 인프라로 국내외 기업의 AI 모델 개발·서비스 운영 지원을 구상
	□ 카카오, AI로 데이터센터 냉방 전력비 23% 절감(2026.09.22) - 카카오가 위탁 운영 중인 경기 하남 소재 임차 데이터센터의 기존 냉방설비 운영 방식을 개선해 별도의 설비 교체나 증설 없이 서비스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냉방 전력비를 약 23% 절감했다고 22일 밝히며, 자체 운영하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에서 축적한 에너지 관리 경험을 임차 데이터센터로 확대한 사례를 공개 - 카카오는 운영 데이터와 현장 상황을 분석해 전산실 냉방 온도와 냉동기 냉수 온도를 최적화하고 데이터 기반 절감 방안을 제시했으며, LG CNS는 운영 경험과 설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비 운전 노하우를 바탕으로 항온항습기(FWU)와 냉동기 등 주요 냉방설비의 운전 방식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일부 전산실에는 환경·설비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냉방설비를 자율 제어하는 자체 개발 AI 에이전트를 적용 - 카카오는 앞서 데이터센터 안산에서도 냉각설비 최적화와 공조 운영 개선, 전력설비 효율화, 태양광 자가소비 등으로 지난해 총 4753tCO₂ eq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으며 이는 환경부 기준 승용차 약 3400대가 1년간 배출하는 양과 유사한 규모로, 향후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임차 데이터센터에서도 운영 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의 확대를 계획
	□ CJ대한통운, 피지컬AI 물류현장 투입 확대(2026.09.21) - CJ대한통운이 지난 18일 피지컬AI 기업 리얼월드(RLWRLD)와 '물류 특화 피지컬AI 전략적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히며, 지난해 리얼월드 지분 투자에 이어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FM) 공동 개발과 실제 물류센터 기술 실증을 통해 물류 현장에 특화된 피지컬AI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협력을 본격화 - RFM은 로봇이 시각·언어·음성·센서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주변 환경을 인식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AI 모델로, CJ대한통운은 물류 현장에서 축적한 데이터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자동화 요구사항과 성능 기준을 설계·검증하고 리얼월드는 RFM과 피지컬AI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도하는 역할 분담을 구성 - CJ대한통운은 최근 경기도 용인 양지 올리브영 물류센터에 휴머노이드 양팔 로봇 2대를 배치해 완충재 투입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피지컬AI 현장 적용에 이미 나섰으며, 물류 작업 데이터로 AI 모델 성능을 고도화하면서 피킹과 분류, 검수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여러 물류 공정을 연속 수행하는 범용 물류 휴머노이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
대학교	□ 대구가톨릭대, 피지컬AI 재배 딸기 제품화 산학협력(2026.09.17) - 대구가톨릭대학교 앵커(ANCHOR·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피지컬AI농업혁신사업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단이 지난 9일 교내 로봇연구센터에서 (주)유비엔, (주)커피명가와 '퍼지컬 AI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을 활용한 딸기 생산 및 제품화 협력'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딸기 재배 실증부터 제품 개발·상품화까지 연결하는 산학협력에 착수 - 협약은 대학 사업단의 스마트팜 환경제어 기술과 유비엔의 딸기 수직재배 기술을 접목해 고품질 딸기의 안정적 생산 가능성을 실증하고 생산된 딸기를 커피명가의 신제품 개발에 활용하는 구조로, 사업단은 퍼지컬AI 기반 스마트팜 기술 자문과 환경제어 시스템 실증 지원을, 유비엔은 수직재배 스마트팜 시설 구축·운영과 실증 재배를, 커피명가는 메뉴·제품 개발과 향후 유통·홍보를 담당 - 세 기관은 딸기 재배환경 연구·실증과 수직재배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 개선, 실증 재배 딸기를 활용한 식품·제품 개발, 공급·품질관리 체계 구축에 협력하며, 대학이 개발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실험 단계에 머물게 하지 않고 실제 농산물 생산과 식품 개발로 잇는 사업화 모델 구축에 초점을 두고 축적되는 재배 데이터로 생산 공정과 품질·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작업을 병행
해외	□ 알리바바, 10조 파라미터 AI·최강 AI칩 공개(2026.09.22) -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22일 중국 항저우에서 개막한 연례 '압사라(Apsara) 콘퍼런스'에서 AI 모델·AI칩·AI 클라우드를 머신 인텔리전스 시대의 3대 핵심 축으로 제시하며, 10조 개에 달하는 매개변수(파라미터)를 탑재한 초대형 AI 모델 개발을 예고하고 중국 최고 성능을 내세운 자체 AI칩을 공개하는 '폴스택 AI' 전략을 본격화 - 알리바바의 AI 모델 개발팀 '첸원(Qwen)'은 차세대 Qwen 5를 5조~10조 파라미터 규모로 훈련해 인간 수준을 넘어서는 인공지능(ASI)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으로, 현재 주력 모델 Qwen 3.8-Max는 2조4000억 파라미터, 중국 최대 오픈웨이트 모델인 문샷AI의 Kimi K3는 2조8000억 파라미터 수준이어서 중국 AI 모델의 규모를 크게 끌어올릴 전망 - 첸샤오량 회장은 AI를 기술적 돌파구에서 가치 창출로 전환하기 위해 폴스택 AI에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투자한다고 밝혔고, 알리바바는 Qwen 4와 Qwen 4.5를 거쳐 Qwen 5로 이어지는 개발 로드맵과 함께 경험적 피드백을 활용한 자기개선 기술과 음성·이미지·멀티모달 기능 고도화 계획, 스마트폰의 여러 앱을 AI가 넘나들며 작업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플랫폼 'Qwen 인텔리전스'를 공개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이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